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그리고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 예 지 안 정 민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사회적 안녕감에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여 사회적 안녕감을 증진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 1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변인 간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변인 간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매개 분석하였다. 연구 2 실험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인과성을 확인하고, 상호작용 효과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결감과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은 사회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은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둘째,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대해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주요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이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연결감이 높을 때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되었다. 또한, 과거 한국 사회와의 하향비교 시 사회적 안녕감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안녕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회적 안녕감,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한국인정체성, 사회비교

* 이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이 논문은 서예지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함.

† 교신저자: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069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47



© 2024,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행복(happiness)과 안녕감(well-being)은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삶의 의미이자 목표이다. 행복에 관한 관심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으며 심리학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의 측면에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그리고 삶의 만족도로 측정했으며, 주로 개인 차원의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에는 주관적 안녕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은 사회적 구조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Keyes, 1998). 개인의 행복은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안녕감은 대인관계 차원, 조직 차원, 공동체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Prilleltensky, 2012), 안녕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안녕감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정한 건강의 정의에서도 나타난다. WHO에서는 안녕감을 “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을 향한 안녕감의 상태”로 정의한다(WHO, 1946). 여기서 강조된 것은 건강이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전체적인 안녕감과 안녕에 대한 상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지만(Genç & Arslan, 2021), 사회적 안녕감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안녕감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안녕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적 안녕감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상호작용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Diener & Seligman, 2004). 둘째, 사회적 안녕감은 정신적인 건강을 강화한다. 특히나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원 체계가 강화되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정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Kawachi & Berkman, 2001). 셋째, 사회적 안녕감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회는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며, 이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번영을 이끌 수 있다(Glaeser et al., 2000; Putnam, 2000; Woolcock, 1998). 넷째, 사회적 안녕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 실제로 사회적 안녕감이 높은 곳에서는 범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적 지원과 연결이 강화되면서 공동체 내에서 적절한 규범과 상호 간의 신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Wilkinson & Pickett, 2009). 또한 사회적 안녕감은 공동체의 통합과 상호의존성을 촉진하여 공동체 내 협력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Putnam, 2000; Woolcock, 1998).

따라서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적응과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심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회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안녕감에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이 절에서는 안녕감(Wellbeing)의 다차원적 접근의 일환으로, 사회적 안녕감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회적 안녕감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에는 사회적 안녕감에 관한 심리학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주관적 안녕감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연결감과 안녕감의 관련성, 사회정체성이 안녕감에 왜 중요한지, 사회비교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 안녕감의 정의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은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심리학에서 사회적 안녕감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환경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는 사회적 관계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 사회적 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의 효과, 타인의 반응 방식 등이 포함된다. 즉, 이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생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eyes, 1998; Keyes et al., 2020). 사회적 안녕감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측정하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인 Keyes(1998)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에서 자신의 기능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반영한다. 이 이론적 틀은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구조(사회적 통합, 사회적 수용, 사회적 기여, 사회적 실현, 사회적 일관성)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의 조절 능력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개인이 사회 및 공동체와 맺고 있는 관계적 질에 대한 평가로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공동체에 얼마나 소속되어 있는지를 느끼는 정도

를 의미한다. 이는 고립과 외로움의 감정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두 번째,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인간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세 번째,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는 이 사회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구성원인지를 느끼는 정도이며, 세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사회적 실현(social actualization)'은 사회와 그 사회집단의 잠재력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나타낸다. 이는 사회가 그 제도와 시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일관성(social coherence)은 사회의 질과 조직에 대한 인식으로, 사회생활과 사회가 의미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회과학 내 다른 분야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을 어떻게 정의할까?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학과 가족학에서는 심리학자 Keyes의 사회적 안녕감 개념을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을 개인이나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적 안녕감의 부재는 폭력, 중도 학업 포기, 유아 사망률, 성적 또는 노동 착취,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주변화 및 빈곤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한다(이재열, 박상희, 2017). 이 관점에서 개인의 안녕감은 환경이나 사회 생태계가 다층적인 지원, 보호, 자원 및 기회를 제공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즉,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인이 사회를 경험하고 평가하는 방식, 타인과의 경험, 그리고 타인이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된다.

행정학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지만, 커뮤니티 웰빙이라는 유사 개념을 사용하여 안녕감의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커뮤니티 웰빙은 '커뮤니티'라는 단위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라는 집합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서재호 외, 2012)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 등을 의미하는 안녕감과 구별된다. 커뮤니티 웰빙은 “개인과 커뮤니티가 번영과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들의 합(Wiseman & Brasher, 2008: 358)”, “시민과 공동체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물리적, 재정적, 사회적, 인적 자본(Cuthill, 2002)”,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고, 개인과 집단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미 있게 행동할 수 있으며, 삶의 방식을 만족하는 곳에서 타인 또는 자연환경과 함께 하는 상태(Armitage et al., 2012)” 등으로 정의된다.

커뮤니티 웰빙은 인적자원, 자연 자원, 사회적 자원이라는 하위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교육, 보건, 복지, 고용, 지역경제, 환경, 주거, 교통 시스템, 안전, 지역사회 유대관계, 시민의식, 신뢰, 문화, 거버넌스 등 다양한 항목들로 측정될 수 있다(Christakopoulou et al., 2001; Markovich et al., 2018; Miles et al., 2008; 이승중 외, 2020). 커뮤니티 웰빙은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전체적인 복지와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객관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을 평가한다. 그에 반해, 심리학에서 정의한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만족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커뮤니티 웰빙은 공동체 수준에서의 안녕을 다루고,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기능, 사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다룬다.

사회적 안녕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이 있다. 이 개념 또한 사회적 통합, 정체성 또는 소속감과 같이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적 결속력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 공유된 가치, 사회 내 개인 및 집단 간 불평등의 정도, 그리고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안녕감을 보장하는 사회의 능력을 포함한다(Oyanedel & Páez, 2020).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적 결속력은 비슷하지만,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나타내는 척

도로, 사회적 집단의 특성보다는 개인적 경험에 더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유사 개념으로 심리적 공동체 의식이 있다. 심리적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며, 서로와 집단에 중요하다는 느낌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요구가 공동의 약속을 통해 충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McMillan & Chavis, 1986). 심리적 공동체 의식은 대인관계적 측면이 강조된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공동체라는 내집단의 경계가 존재한다. 그에 반해 사회적 안녕감은 대인관계 차원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과의 관계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을 강조하지만, 모두 개인의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사회적 안녕감은 학문 분야마다 다른 학술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특성은 유사하며, 다양한 잠재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의 단순한 질문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아직 사회적 안녕감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다양한 정의를 수용하고 있기에 여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 안녕감을 사회적 소속감이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와 같은 특정 차원을 사용하여 측정하기도 한다(Oyanedel & Páez, 2020).

종합하면,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의 관점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행복에 있어서 개인의 쾌락적 측면을 반영하는 긍정 정서와 삶의 만족도로 측정되는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큰 차이점이며, 행복의 유다모니아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심리적 안녕감과도 구별된다. 사회적 안녕감은 기존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행복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개인이 사회를 경험하고 평가하는 방식, 타인과의 경험, 그리고 타인이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사회구조, 제도 및 사회 구성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을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 효능감,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측정하려고 한다.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적 기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개념을 포함하기에, 사회가 잘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는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중요하다. OECD의 주요 삶의 지표를 살펴볼 때도 사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신뢰감을 활용하여 측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안녕감은 인간의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개념이다. 행복의 목표이론(goal theory, Austin & Vancouver, 1996)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를 향해 진전되고 있다고 믿을 때 행복을 느낀다. 인간의 행복과 삶의 만족은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 목표 달성에 대한 전망, 즉 미래에 대한 희망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Snyder et al., 2002),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안녕감 지표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효능감은 집단 멤버십에 대한 인식으로 내가 속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Cantor & Sanderson(1999)에 따르면, 목표 추구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효능감이다(Locke & Latham, 2002). 효능감이 높을수록 보다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동

기부여를 한다(Bandura, 1997; Schunk & Pajares, 2009; Zimmerman, 2000). 따라서 집단 효능감 문항은 현재 이 내가 속한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측정하기에, 사회적 안녕감의 지표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안녕감의 기능

사회적 안녕감은 우울증, 신체화, 불안과 같은 심리적 건강 문제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삶의 질 지표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Arslan et al., 2020; Kennes et al., 2020; Kertzner et al., 2009; Petrillo et al., 2015; Weijers et al., 2020). 또한, 사회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 정서적 균형,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Joshanloo & Ghaedi, 2009). 이와 동일한 연구에서는 권력 추구하고 자기 주도성이 사회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순응과 자비심을 중요시하는 것이 사회적 안녕감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대인관계 차원에서 사회적 안녕감의 이점은 분명하다. 사회적 안녕감은 사람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Keyes, 1998). 이는 개인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반영하며,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의 조절을 나타낸다. 실제로 사회적 안녕감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등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Helliwell, 2014). 아울러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적 지지, 심리적 공동체 의식, 공동체 동일시, 자존감, 자기 효능감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oshanloo et al., 2006).

또한 전반적인 사회적 안녕감이 미국의 시민 참여 및 친사회적 행동 측정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Keyes & Ryff, 1998). 사회 참여와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사회적 기여에 중요한 변인이며,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사회적 안녕감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주요 차원일 뿐 아니라, 사회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Zhang & Ma, 2020). 사회적 안녕감은 규범, 네트워크,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Helliwell, 2008). 지역사회 참여, 생산성, 삶의 만족도, 행복과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icognani et al., 2008), 불쾌감 및 아노미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Keyes, 1998).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안녕감은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적 건강 문제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참여와 친사회적 행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연결감과 안녕감

사회적 연결감은 외로움의 반대 개념으로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가까움과 함께함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다. 이는 다른 개인, 집단 또는 사회와의 의미 있고 가깝고 건설적인 대인관계 및 집단 또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반영한다(Lee & Robbins, 1998; Townsend & McWhirter, 2005; Malone et al., 2012; Stanley et al., 2019).

사회적 연결감은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핵심 요소이다(O'Rourke & Sidani, 2017). 높은 사회적 연결감은 청년기의 주관적 안녕감(Jose et al., 2012)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낮은 사회적 연결감은 노인의 우울증 위험이 더 크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Armstrong & Oomen-Early, 2009).

사회적 연결감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지만 불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Robbins, 1998). 사회적 연결감이 강

한 사람들은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며(Davidson & Cotter, 1991), 외로움을 덜 느낀다(Pretty et al., 1996). 또한, 사회적 연결감은 불안과는 부정적인 관련이 있지만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 Robbins, 1995).

대인관계 차원의 연결감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조직 및 기관과의 사회적 연결감도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학교, 가족, 또는 더 넓은 지역사회와의 연결감이 청소년들의 자해, 자살 사고 및 자살 계획과 같은 유해 행동을 예방하는 변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Kaminski et al., 2010; Eisenberg & Resnick, 2006).

더 나아가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사람들은 투표 및 이웃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가 더 높았다(Brodsky et al., 1999).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경우, 연결감이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Hopkins et al., 2016). 이러한 사회적 연결성은 특히 불확실성과 고통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연결성은 트라우마와 재난에 노출된 후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강하게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수이며(Ozby et al., 2007),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고립감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던 COVID-19의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성은 불안, 우울 및 COVID-19 관련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Humphrey et al., 2022).

사회적 연결감은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친밀감을 의미하며, 이는 심리적 안녕과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증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정체성과 안녕감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들)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소속감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자기개념의 일부로 정의 된다(Tajfel, 1978). 국적, 종교, 성(性), 직업, 학교 등 다양한 사회 범주에 소속됨으로써 획득하는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을 지각하는 중요한 참조 틀이 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지리적, 역사적 응집체인 가족, 계급, 공동체, 국가와 같은 집단들로 조직되어 있고, 정체성은 이러한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동수 외, 2007).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하며,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한다(Tajfel & Turner, 1979). 내집단(In-group)은 개인이 자신을 소속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집단으로, 이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정체성의 원천이 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반면, 외집단(Out-group)은 개인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자신과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간 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는 사회 정체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Haslam et al., 2012; Levine et al., 2005). 구체적으로 사회정체성은 내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수용, 자기가치의 감각, 다른 사람들과의 소속 및 사회적 연결감, 구체적인 원조, 물질적 자원 및 재정적 지원, 그리고 개인이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Branscombe et al., 1999; Cohen & Syme, 1985; Postmes & Branscombe, 2002).

그러나 사회정체성이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는 "사회적 저주"로 불리며, 일부 집단이 특정 특성에 기반해 부정적으로 고정관념화되거나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될 때 발생한다(Goffman, 1964; Link & Phelan, 2001).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수용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의

자존감과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Tajfel & Turner, 1979).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을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기개념과 자존감을 형성하며, 이는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사회정체성이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인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농경 세대, 산업 세대, 정보 세대 등 인구 집단 간 가치의 다양성이 두드러지며,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평등주의와 이기주의 등 서로 모순될 수 있는 가치 지향들이 공존한다(이명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정체성이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사회정체성과 그로 인해 형성된 의식은 그 사회가 처한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 시대의 제도와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동력이 된다(Gray et al. 2023). 그러므로, 한국인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비교와 안녕감

사회비교는 자기의 능력과 의견 등을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Festinger, 1954). 이는 인간의 자기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이며 보편적인 과정이다(Festinger, 1954). 사람들은 많은 것을 판단할 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여 판단한다(Gilbert et al., 1995). 사회비교 이론(Festinger, 1954)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평가에 대한 선천적인 욕구의 결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사회비교는 상향비교, 하향비교, 유사비교로 구분된다. 상향, 하향, 유사 이 세 가지 방향의 사회비교는 각기 다른 사회비교 동기에 의해서 활성화된다(Taylor et al., 1996; Wood, 1989). 상향비교는 자신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과 자신을 비

교하는 것으로, 자기향상 동기와 관련성이 높다. 하향비교는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자존심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고양 동기와 관련성이 높다. 또한, 유사비교는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자기평가 동기와 관련성이 높다(장은영, 한덕웅, 2004; Taylor et al., 1996).

사회비교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은 개인이 자신을 평가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내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적이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비교는 보통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신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Festinger, 1954). 외집단에 대한 태도는 내집단보다 덜 우호적이며,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외집단과의 비교는 자주 경쟁적이거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속한 내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집단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Brewer, 1999; Festinger, 1954; Tajfel, 1982).

사회비교와 안녕감의 관련성을 보면, 상향 비교는 낮은 자존감, 신체 불만족, 섭식 장애와 같은 부정적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졌다(Carlson Jones, 2004; Clay et al., 2005; Smolak & Stein, 2006). 과도한 상향 비교는 우울증과 불안 증상(Nesi & Prinstein, 2015), 물질주의(Chan & Prendergast, 2007)와 관련이 있으며, 삶의 의미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assai et al., 2013).

사회비교는 사회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교문화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인 서양인들에 비해 사회비교를 더 자주 한다(White & Lehman, 2005; White et al., 2006). 자아의 독특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양

문화와 달리, 자아를 상호의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양 문화에서는 사회비교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Kemmelmeier & Oyserman, 2001; White & Lehman, 2005). 또한, 사회 계층이 높은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이 사회비교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Piff et al., 2010; Dubois et al., 2015). 그리고 불확실성, 스트레스,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는 사회비교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Wills, 1981; Molleman et al., 1986).

현대 사회에서는 SNS의 발달로 인해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다. SNS는 매체의 특성상 집중적인 사회적 비교를 유발하는 플랫폼이다(Ozimek et al., 2017). SNS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비교는 대부분 상향 비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Vogel et al., 2015). 현실에서는 친구들과 동료들을 그들의 성공과 실패, 어려움과 불행의 순간에 만나지만,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자기 삶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Vogel et al., 2014).

이로 인해 우리는 항상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보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향 비교를 하게 된다. 실제로 SNS 사용 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고(Kalpidou et al., 2011; Vogel et al., 2015),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험을 하고(Feinstein et al., 2013; Haferkamp & Krämer, 2011; Vogel et al., 2015),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Jang et al., 2016).

사회비교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으로, 상향 비교는 자존감 저하와 부정적 심리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SNS는 상향 비교를 촉진해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사회비교의 동기는 문화, 사회적 지위, 불확실성 등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내집단과 외집단 간 비교는 개인 정체성과 집단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의 상호 관련성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들로, 각각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의 상호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연결감은 집단 혹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여, 사회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강한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집단과 자신을 더 강하게 동일시하게 된다 (Brewer, 1991; Ellemers et al., 2002). 사회정체성과 사회비교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개인이 속한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사회비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다. 내집단과의 비교는 보통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강화하는 반면, 외집단과의 비교는 때때로 경쟁적이거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Tajfel & Turner, 1986).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Ashforth & Mael, 1989; Ellemers et al., 1999).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비교의 영향을 덜 받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강한 사회적 연결감이 있으면 상향비교를 자기 향상의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연결감이 약할 경우 상향 비교는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unk & Ybema, 1997; Collins, 1996; Tesser, 1988).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의 영향을 받는다. 강한 연결감과 긍정적 정체성은 안녕감을 높이는 반면, 부정적 사회비교는 이를 저해할 수 있다. 각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연결감, 사회적 정체성,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사회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사회비교에 따른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정체성이 사회적 안녕감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매개 분석하였다.

문헌 검토 결과, 사회적 안녕감,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이들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 1의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2에서 사회적 안녕감뿐만 아니라 사회정체성을 종속변인으로 살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사회정체성이 사회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복잡성과 윤리적 이유로 실험적 조작은 어렵다. 사회정체성은 문화, 집단 소속, 개인의 경험 등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기 때문이며, 일시적인 자극으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Ellemers et al., 2002; Tajfel & Turner, 1979; Vignoles, 2011; Ashforth & Mael, 1989). 또한, 사회정체성 조작 시도 자체가 참여자의 정서적 혼란 및 불안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 2에서는 사회정체성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고,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가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이를 통해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목표, 연구 질문, 그리고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 1(설문조사):** 연구 변인 간 관련성 검증 및 사회비교 조건별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정체성의 영향력 확인한다.

연구가설 1-1.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에 사회정체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사회비교 조건에 따라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정체성이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 **연구 2(실험연구):** 사회적 안녕감·사회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인과성 및 상호작용 확인한다.

연구가설 2-1.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에 따라 사회적 안녕감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2-2.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에 따라 사회정체성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2-4.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1: 설문조사

연구 1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변수 간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비교 조건에 따라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정체성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매개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집단을 상향비교(외집단), 하향비교(내집단 vs 외집단)로 구분하였다. 상향 비교는 더 높은 수준이나 상태의 다른 사

람이나 집단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과거보다 발전해 왔음을 다양한 사회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GDP)은 1980년대 1, 1,714달러, 2000년 12,260달러, 2010년 23,083달러, 2023년 33,127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기대수명 또한 2000년 76년에서 2022년 82.7년으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 부패인식 지수¹⁾는 2000년 4점, 2012년 56점, 2023년 63점으로 상승하였으며, 범죄율도 2012년 3,874건(10만 명당)에서 2022년 3,048(10만 명당)로 21.3% 감소하였다(통계청, 2023). 이러한 지표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를 과거 한국 사회(하향비교)가 아닌 상향 비교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향 비교에서는 내집단을 포함하지 않고, 선진국(외집단)으로 설정했다.

반면, 하향비교는 내집단 선호도의 영향을 고려해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했다. 하향비교에서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내집단과의 하향비교는 집단 정체성과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공이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이는 집단 내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Beaton et al., 2008; Nier et al., 2001; Rand et al., 200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하향비교 시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 1 설문조사는 장훈장학회의 지원을 받아 인바이트의 invitation-based Panel을 대상으로 자

1) 부패인식 지수는 0점~100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나타낸다.

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확률적 표본추출에 따라 조사 참여 권유를 받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성인 남녀 나이별 100명씩(20~30대: 100명, 40~50대: 100명, 60대 이상: 100명) 총 300명을 표집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성 48.2%(145명), 여성 51.7%(15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9.20, 표준 편차 13.98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42명), 대학교 재학 및 졸업 68%(204명), 대학원 재학/졸업 18%(54명)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 28.8%(188명), 기혼 65.3%(196명), 이혼/사별/별거 6.5%(19명)로 나타났다. 자녀 여부는 있음 62.7%(188명), 없음 37.3% (112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27.7%(83명), 경기 31.7%(95명), 대구 5.3%(16명), 인천 4.7%(14명), 경남 4.7%(14명), 부산 4.3%(13명), 경북 3.3%(10명), 전남 2.7%(8명), 충남 2.7%(8명), 전북 2.3%(7명), 광주 2.0%(6명), 강원 2.0%(6명), 대전 2.0%(6명), 울산 1.7%(5명), 충북 1.3%(4명), 제주 1.0%(3명), 세종 0.7%(2명)이었다. 이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 번호: 1041078-20231130-HR-317) 연구의 목적, 위험도, 그리고 연구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며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사회적 연결감

이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감은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가까움과 함께함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며, Lee & Robbins(1995)가 개발한 사회적 연결감 척도를 직접 번안하여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으로는 '나는 사회와의 모든 유대감을 잃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누구와도, 어떤 집단과도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내 주변의 세상과 동떨어진 기분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 주위에서조차, 나는 내가 정말로 속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등 총 8문항으로 1점(매우 동의한다)-6점(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 .944$ 로 나타났다.

사회정체성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정체성 중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 자기 개념의 일부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를 성한기(2001)가 개발한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에는 '한국 사회에 속한 사실이 부끄럽다*', '나는 한국 사회와 나를 동일시한다', '나는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잘 맞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들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역문항*표시).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사회비교

사회적 안녕감을 평가했을 때 사용했던 사회비교 기준점을 알아보기로 ① 과거 한국 사회(하향비교 내집단), ② 현재 개발도상국(하향비교 외집단), ③ 현재 선진국(상향비교), ④ 없음'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안녕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사회 구조·제도 및 사회 구성원)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기존에 Keyes(1998)가 개발한 사회적 안녕감 척도는 사회 통합, 사회 공헌, 사회적 일관성, 사회 실현, 사회 수용이라는 하위 척도를 통해 개인이 사회에서 겪는 상황과 기능을 평가한다(Keyes, 1998). 그러나 이 척도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제도, 사회 구성원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이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환경과 사회 구성원

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인식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도,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집단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안녕감은 세 가지 척도의 평균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측정한 사회적 안녕감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 .852$ 로 나타났다.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김지범 외 (2022)가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사용한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척도를 활용하였다. '다음 주요 사회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기업, 금융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언론, 교육기관 등에 대해 총 15문항으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1점(전혀 신뢰하지 않음)-5점(매우 신뢰함) 측정하였다.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발전, 정치적 발전, 사회적 연대,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호영성, 박진수, 김영기(2016)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미래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등과 같은 총 4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

다)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집단 효능감. Carroll, Rosson, & Zhou(2005)가 개발한 척도로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에 대한 척도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로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실수와 좌절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시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협력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총 5문항으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 사회적 안녕감, 사회 신뢰, 집단 효능감, 미래 사회인식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상관관계 표 1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연결감은 사회정체성, 사회적 안녕감(사회 신뢰, 집단 효능감, 미래 사회인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사회비교는 다른 변인들과 상관이 없는 것

표 1. 변인간상관관계

변수	1	2	3	4	4.1	4.2	4.3
1. 사회적 연결감	1						
2. 사회정체성	.47**	1					
3. 사회비교	.05	.05	1				
4. 사회적 안녕감	.38**	.66**	.03	1			
4.1) 사회 신뢰	.20**	.40**	.03	.67**	1		
4.2) 집단 효능감	.36**	.57**	.04	.85**	.38**	1	
4.3) 미래 사회인식	.32**	.52**	.02	.85**	.40**	.64**	1

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체성은 사회적 안녕감(사회 신뢰, 집단 효능감, 미래 사회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회적 연결감은 $M = 4.45(SD = 0.92)$, 사회정체성은 $M = 3.53(SD = 0.48)$, 사회적 안녕감은 $M = 4.05(SD = 0.63)$, 사회 신뢰는 $M = 2.57(SD = 0.56)$, 집단 효능감은 $M = 3.49(SD = 0.65)$, 미래 사회인식은 $M = 3.37(SD = 0.75)$ 로 나타났다.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변인 중 사회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 기준에 대한 응답 비율은 이와 같다. ‘없음 및 기타’ 응답은 총 29개로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과거 한국 사회($n=46, 17\%$), 현재 개발도상국($n=31, 10.3\%$), 현재 선진국($n=194, 71.6\%$)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는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그리고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그리고 사회비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으로,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개 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상호 관련성과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사회적 연결감은 집단 또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여 사회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집단과 자신을 더 강하게 동일시하게

된다(Brewer, 1991; Ellemers et al., 2002). 그러므로 사회적 연결감은 사회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감이 사회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사회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 1에서는 사회적 연결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이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감이 사회정체성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정체성은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적 연결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 안녕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에서 사회정체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회비교의 맥락이 무엇이나에 따라 사회정체성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정체성이 강한 개인은 사회비교의 영향을 덜 받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Ashforth & Mael, 1989), 이는 사회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Haslam et al., 2009).

사회비교는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다(Tajfel & Turner, 1986).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비교의 영향을 덜 받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강한 사회적 연결감이 있으면 상향비교를 자기향상의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연결감이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M	SD
사회적 연결감	300	1.63	6.00	4.45	0.92
사회정체성	300	1.74	4.84	3.53	0.48
사회적 안녕감	300	2.05	4.76	4.05	0.63
- 사회 신뢰	300	1.00	4.40	2.57	0.56
- 집단 효능감	300	1.00	5.00	3.49	0.65
- 미래 사회인식	300	1.25	5.00	3.37	0.75

약할 경우 상향 비교는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unk & Ybema, 1997; Collins, 1996; Tesser, 1988).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이러한 사회비교가 조절변수로서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정체성이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0% 이상이 상향 비교를 선택함으로써 자료의 편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회 비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 비교 집단별로 매개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그리고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하였다.

상향비교 집단(n = 194, 71.6%)의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에서 사회정체성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R^2 , 193) = 26.16, $p < .001$)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R^2 , 193) = 67.91,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12.0% (수정된 제곱은 11.5%),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41.6%(수정된 제곱은 40.9%)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연결감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520$, $p < .001$). 즉, 사회적 연결감이 높을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연결감은 사회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016$, $p = .810$), 매개변수인 사회정체성은 사회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36$, $p < .001$)(그림1 참조).

하향 비교 집단은 내집단 비교(n = 46, 17%)와 외집단 비교(n = 31, 11.4%)를 포함하였으며,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결과 유형에서 차이가 없었으므로, 두 집단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n = 77, 28.4%). 하향비교 집단의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에서 사회정체성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표 3. 상향비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의 사회정체성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F	df	R ² (ΔR^2)
사회 정체성	(상수)	2.320	0.150		15.482***	0.000	26.16***	1,193	0.279 (0.266)
	사회적 연결감	0.275	0.033	0.520	8.427***	0.000			
사회적 안녕감	(상수)	3.212	0.796		4.037***	0.000	67.91***	1,193	0.416 (0.409)
	사회적 연결감	0.033	0.135	0.016	0.241	0.810			
	사회정체성	2.513	0.256	0.636	9.830***	0.000			
경로					B	S.E	LLCI	ULCI	
사회적 연결감 → 사회정체성 → 사회적 안녕감					.6917	.1247	.4689	.957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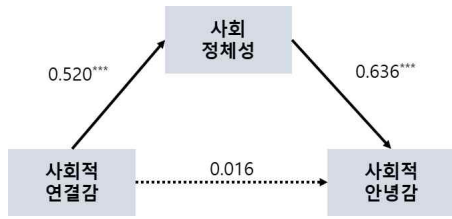


그림 1. 상향비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의 사회정체성의 매개효과

회귀모형($R^2, 76$) = 14.77, $p < .001$)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R^2, 76$) = 38.54,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16.7%(수정된 제곱은 15.6%),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51.0%(수정된 제곱은 49.7%)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20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연결감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406, p < .001$). 즉, 사회

적 연결감이 높을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적 연결감은 사회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9, p = .098$). 매개변수인 사회정체성도 사회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41, p < .001$)(그림2 참조).

앞서 진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에서 사회정체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적 연결감은 사회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에서 사회정체성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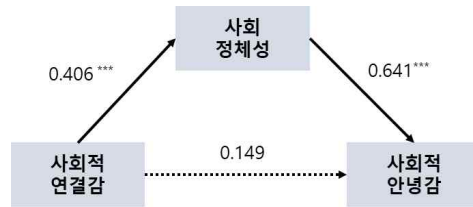


그림 2. 하향비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의 사회정체성의 매개효과

표 4. 하향비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의 사회정체성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F	df	R^2 (ΔR^2)
사회 정체성	(상수)	2.681	0.223		12.028	0.000	14.77***	1,76	0.165 (0.153)
	사회적 연결감	0.192	0.050	0.406	3.844***	0.000			
사회적 안녕감	(상수)	1.746	1.193		1.463	0.148	38.54***	1,76	0.510 (0.497)
	사회적 연결감	0.287	0.171	0.149	1.678	0.098			
	사회정체성	2.598	0.361	0.641	7.196***	0.000			
경로					B	S.E	LLCI	ULCI	
사회적 연결감 → 사회정체성 → 사회적 안녕감					.4986	.1819	.1639	.8682	

* $p < .05$, ** $p < .01$, *** $p < .001$

종합하면, 상향비교 집단과 하향비교 집단 모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 사회정체성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상향집단과 하향 집단 모형의 효과 계수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에 사회정체성의 완전 매개효과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1에서는 사회비교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 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적 안녕감 사이에서 사회정체성은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사회적 연결감은 사회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완전매개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적 연결감이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변인이기에(O'Rourke & Sidani, 2017; Jose et al., 2012; Davidson & Cotter, 1991), 사회적 안녕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연구가설과 상반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사회적 안녕감을 사회정체성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 집단 효능감)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매개 모형에서 사회정체성이 영향력을 많이 가져가 사회적 연결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결감이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의 문항이 서로 관련성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사회비교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안녕감(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후, 그 평가 기준을 범주형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시 참여자들의 70% 이상이 상향비교를 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SPSS macro를 활용한 사회비교의 조절 효과 분석 시 편중된 데이터로 인해 효과 크기와 방향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Hayes, 2017).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비교 집단별로 매개효과 분석하였으나, 사회비교의 조절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비교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설문지 구성이 맥락과 조건으로서 사회비교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안녕감 측정 후 사회비교의 기준을 물었으나, 이러한 측정 방식이 사회비교의 조건과 맥락을 충분히 활성화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든 측정이 끝난 후에 사회비교 기준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주관적 왜곡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비교 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리라 생각한다(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에 응답했지만, 사회비교 질문을 보고 선진국과 비교했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실제 효과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실험연구(연구 2)를 진행하였다. 실험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사회비교 동기를 통제하고 사회비교를 점화시켜, 사회비교 조건에 따른 사회적 안녕감 및 사회정체성의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은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 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적 안녕감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연결감이 완

전 매개효과를 가지며, 사회비교는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즉, 선행연구와 달리 사회적 안녕감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가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의 이러한 결과는 보완이 필요한 연구 결과지만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를 넓혔다.

연구 2: 실험연구

연구 2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사회적 안녕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인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적 연결감, 사회비교, 한국인정체성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으나, 사회적 안녕감에 각 변인들이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부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실험을 통해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인과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실험에 앞서 실험 절차를 테스트하고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중앙대 대학원 및 학부 심리학 전공자 3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비교는 짧은 동영상 시청으로 조작이 되지만, 사회적 연결감은 동영상 시청만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변인임을 확인하였다²⁾. 따라서 실험 당일 사회비교 조작 동영상

시청 전에 사회적 연결감을 측정하였으며, 자료 분석 시 평균을 기준으로 고·저 집단으로 나누었다³⁾. 사회비교는 사회비교를 점화시킬 수 있는 3분짜리 실제 뉴스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조작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생들과 중앙대 평생교육원 학생들 22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감(고/저)⁽²⁾ * 사회비교 조작(상향 vs 하향(내집단/외집단)⁽³⁾)으로 총 6개 집단으로 설계하였다.

연구 대상

서울 소재 대학생들과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2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남성 27.6%(61명), 여성 72.4%(160명)였으며, 평균 연령은 31.96, 표준 편차 11.44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9%(24명), 대학교 재학 및 졸업 82.8%(183명), 대학원 재학/졸업 6.3%(14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구체적인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블록 무선 할당(Block Randomization)을 사용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을 소규모 블록으로 나눈 후, 각 블록 내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참가자들을 상향 비교, 하향 비교-내집단, 하향 비교-외집단으로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 전 참여자들에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 연구가 사회정체성과 사회적 안녕감에 관한 것이라고 간략히 소개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율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받았다. 실험이 끝난 후에는 연구의 실제 목적인 사회적

과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3) 사회적 연결감 저집단(n = 101)의 평균 4.18(SD = .87), 고집단(n = 120)평균 5.81(SD = .25)로 나타났다.

2) 사회비교 동영상 시청 후 사회적 안녕감 평균이 상향(M = 2.42, SD = 0.73), 하향(내)(M = 3.52, SD = 0.75), 하향(외)(M = 3.04, SD = 1.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정체성은 상향(M = 3.28, SD = 0.80), 하향(내)(M = 3.77, SD = 0.63), 하향(외)(M = 3.10, SD = 0.44)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 부족으로 ANOVA분석 결

표 5. 실험연구 표집틀

사회적 연결감 집단구분 * 사회비교 집단구분 교차표						
			사회비교 집단구분			전체
			상향	하향_외	하향_내	
사회적 연결감 집단구분	저	빈도	31 (14%)	39 (17.6%)	31 (14%)	101 (45.7%)
	고	빈도	40 (18.1%)	37 (16.7%)	43 (19.5%)	120
전체		빈도	71 (32.1%)	76 (34.4%)	74 (33.5%)	221 (100%)

연결감과 사회비교가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브리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연구 목적에 부적절한 응답자의 자료와 불성실한 응답률을 보인 자료(19건)를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자는 이전에 관련된 사회적 안녕감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불성실한 응답은 편향된 답변을 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응답을 의미한다. 실험연구 표집틀은 구체적으로 표 5에 작성하였다.

사회비교 동기는 사회비교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Taylor et al., 1996) 실험적 조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비교 동기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실험 조작 전 사전에 사회비교 동기를 측정하였다. 이후 사회비교 조작 동영상 시청하였다⁴⁾.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적 정체성을 묻는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후 설문지에는 조작 점검 문항과 동영상 시청 후 정서 경험도 포함되어 있었다. 분석에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비교 동기, 동영상 매체와 전달자의 매력도 및 신뢰도는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실험은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

인을 받은 후(승인 번호: 1041078-20231130-HR-317) 연구의 목적, 위험도, 그리고 연구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며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실험 자극

사회비교 조작을 위한 동영상 자극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상향비교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저조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뉴스를 시청하게 하였다. 하향비교의 경우 내집단과 외집단 비교를 구분하였다. 하향비교 내집단의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이 과거 한국 사회와 비교했을 때 큰 성과를 이뤘다는 뉴스를 시청하였다. 하향비교 외집단의 경우 개발도상국인 미얀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뉴스를 시청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나은지 비교하게 하였다. 모든 동영상 자극은 약 3분 내외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안녕감

연구 1에서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1과 동일하게, 사회적 안녕감은 세 가지 척도의 평균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균을 산출하였다. 사회적 안녕감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 .856$ 으로 나타났다.

4) 상향비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뉴스, 하향비교(내집단):과거 한국사회에 비해 현재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뉴스, 하향비교(외집단): 미얀마의 현재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다룬 뉴스.

사회적 연결감

연구 1에서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연결감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 .931$ 로 나타났다.

사회정체성

연구 1에서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 .874$ 로 나타났다.

사회비교 동기

개인의 사회비교 동기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에 Gibbons & Buunk(1999)가 개발하고 한덕웅, 장은영(2003)이 번안한 사회비교 동기 척도를 측정하였다. 예시로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려고 한다', '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유는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등 총 15문항이 있다. 1점(전혀 동의 하지 않음)-5점(매우 동의함)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비교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 .899$ 로 나타났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 사회적 안녕감, 사회 신뢰, 집단 효능감, 미래 사회 인식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사회비교 동기에는 자기고양의 동기가 있는 하향비교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기향상 동기가 있는 상향 비교와 자기평가 동기가 있는 유사동기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연구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연결감($M = 5.06, SD = 1.02$), 사회정체성($M = 3.56, SD = 0.57$), 사회적 안녕감($M = 3.19, SD = 0.76$), 사회 신뢰($M = 2.74, SD = 1.45$), 집단 효능감($M = 3.60, SD = 0.70$), 미래 사회인식($M = 3.23, SD = 0.82$)으로 나타났다. 사회비교 동기에서는 상향비교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M = 3.64, SD = 0.95$), 그다음으로는 유사비교 동기($M = 3.30, SD = 1.03$),

표 6. 연구 2 변인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1	3.2	3.3	4	4.1	4.2	4.3
1. 사회적 연결감	1								
2. 사회정체성	.297**	1							
3.1) 상향비교	.070	.188**	1						
3.2) 하향비교	-.130	.098	.192**	1					
3.3) 유사비교	.081	.194**	.478**	.307**	1				
4. 사회적 안녕감	.299**	.588**	.161*	.042	.189**	1			
4.1) 사회 신뢰	.202**	.355**	.105	.064	.165*	.844**	1		
4.2) 집단 효능감	.305**	.515**	.123	.075	.139*	.661**	.276**	1	
4.3) 미래 사회인식	.218**	.575**	.160*	.060	.116	.738**	.357**	.505**	1

표 7. 연구 2 변인 기술통계

변수	n	최솟값	최댓값	M	SD
1. 사회적 연결감	221	1.13	6.00	5.06	1.02
2. 사회경제성	221	1.89	5.00	3.56	0.57
3.1) 상향비교	221	1.00	5.00	3.64	0.95
3.2) 하향비교	221	1.00	5.00	2.43	1.10
3.3) 유사비교	221	1.00	5.00	3.30	1.03
4. 사회적 안녕감	221	1.68	4.60	3.19	0.76
4.1) 사회신뢰	221	1.00	5.00	2.74	1.45
4.2) 집단 효능감	221	1.80	5.00	3.60	0.70
4.3) 미래 사회인식	221	1.25	5.00	3.23	0.82

하향비교 동기($M = 2.43$, $SD = 1.10$) 순으로 높았다.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에 따른 사회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 각각의 주 효과(main effect)와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 간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연결감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 = 7.741$, $p < .01$), 사회비교에 대한 주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121$, $p < .05$). 그리고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참조).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연결감의 주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페로니의 다중비교(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연결감 고집단($M = 3.36$, $SD = 0.07$) 대비 저집단($M = 3.07$, $SD = 0.08$)이 사회적 안녕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비교의 주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페로니의 다중비교(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비교 하향 내집단($M = 3.33$, $SD = 0.09$) 대비 상향집단($M = 3.03$, $SD = 0.09$)이 사회적 안녕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집단 간 차이는 (하향 외집단 vs 하향 내집단, 하향 외집단 vs 상

표 8.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상호작용 효과

변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사회적 연결감	4.623	1	4.623	7.741	0.006
사회비교	3.728	2	1.864	3.121	0.046
사회적 연결감 *사회비교	1.177	2	0.589	0.986	0.375
오차	125.418	210	0.597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에 따른 사회적 안녕감 평균

종속변수	사회비교	사회적 연결감	<i>n</i>	<i>M</i>	<i>SD</i>
사회적 안녕감	상향	고	40	3.25 ^b	0.12
		저	31	2.80 ^a	0.14
	하향 외집단	고	37	3.45 ^a	0.13
		저	39	3.12 ^a	0.13
	하향 내집단	고	43	3.38 ^a	0.12
		저	31	3.29 ^a	0.14

Bonferroni: a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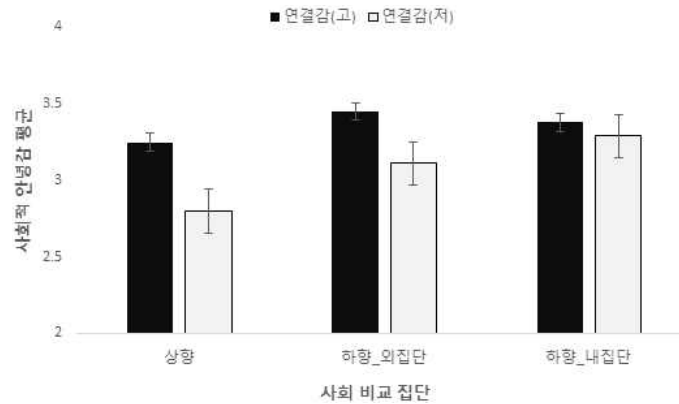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에 따른 사회적 안녕감 평균

주. 사회적 연결감 (고/저), 그리고 사회비교 집단은 상향, 하향_외집단, 하향_내집단에 대한 사회적 안녕감 평균 (framing scores)이 제시되어 있다. 에러바 (error bars)는 표준오차를 보여준다.

향집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에 따른 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 각각의 주 효과(Main effect)와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 간 상호작용(Interaction effect)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연결감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 = 12.435, p =$

.001). 사회비교에 대한 주 효과는 $p = .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사회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연결감의 주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페로니의 다중비교(Bonferroni's 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연결감 고집단($M = 3.67, SD = 0.05$) 대비 저집단($M = 3.43, SD = 0.05$)의 사회정체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사회정체성에 대한 사회비교의 주 효과는 $p = .05$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사회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상호작용 효과

변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회적 연결감	3.231	1	3.231	12.435	0.001
사회비교	1.371	2	0.686	2.638	0.074
사회적 연결감 *사회비교	0.145	2	0.073	0.280	0.756
오차	54.568	210	0.260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에 따른 사회정체성 평균

종속변수	사회비교	사회적 연결감	n	M	SD
사회정체성	상향	고	40	3.69 ^a	0.08
		저	31	3.38 ^a	0.09
	하향 외집단	고	39	3.58 ^a	0.09
		저	37	3.34 ^a	0.08
	하향 내집단	고	43	3.75 ^a	0.08
		저	31	3.56 ^a	0.09

Bonferroni: a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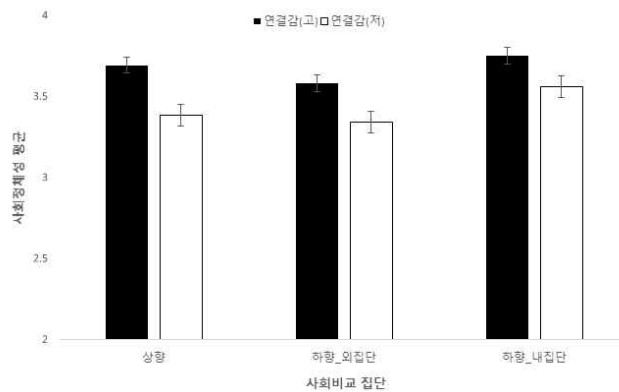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에 따른 사회정체성 평균

주. 사회적 연결감 (고/저), 그리고 사회비교 집단은 상향, 하향_외집단, 하향_내집단에 대한 사회정체성 평균_{framing scores}이 제시되어 있다. 에러바_{error bars}는 표준오차를 보여준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의 인

과성 여부를 검증하고,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 효과는 나타났다. 즉, 사회적 연결감이 높을 때 사람들은 사회적 안녕감이 가장 높고, 사회정체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하향 내집단(과거 한국 사회)과 사회비교할 때 사회적 안녕감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연구가설에서는 사회적 연결감이 낮고 내집단 하향 사회비교를 할 경우, 과거 한국 사회보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현재 한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개인이 경험하는 낮은 사회적 연결감이 대비되어 사회적 고립감을 더 깊게 느낄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이 가장 낮을 거라 예상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비교의 상호작용 효과는 연구가설과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수준은 거시적 차원의 경제 상황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주관적인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다(Malešević Perović, 2008; Zhao, 2012).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에 대한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다루었기 때문에, 미시적 차원의 주관적 경제 상황을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 한국 사회보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뉴스 자체가 개인이 지각하는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경제 성장 대비 낮은 사회적 연결감이 대비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후 개인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연구 2의 시사점은 이와 같다. 첫째, 사회적 연결감이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연구 1(설문조사)에서는 사회적 연결감이 사회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2(실험연구)를 통해 사회적 연결감이 사회적 안녕감에 인과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연결감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다양한 사회비교를 검증함으로써 내집단 하향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하향비교와 상향비교 효과만 살펴보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하향비교를 세분화하였다. 하향비교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비교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하향비교가 상향비교보다 사회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특히나 내집단 하향비교가 외집단 하향비교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실험 조작 시 비교 시기에 따른 효과가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집단-하향비교의 경우, ‘과거’ 시점(과거 한국과 현재 한국)과 비교하고, 그밖에 집단에서는 ‘현재’ 시점(현재 개발도상국과 한국, 현재 선진국과 한국)과 비교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하여 비교 시점을 포함한 사회비교 조건 외의 다른 요소들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사회비교 기준점의 효과를 더 명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사회적 연결감, 사회비교)의 효과를 밝혀,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적 개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사회비교는 단순한 점화만으로도 판단의 기준을 바꿔 사회인식과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비교는 개인의 동기적 성향으로 보기도 하지만(Gibbons & Buunk, 1999), 이러한 사회비교 경향성은 환경에 따라 쉽게 변화하며 조작이 간단하고 단시간 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한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Taylor & Lobel, 1989; 한덕웅, 장은영, 2003). 이러한 실험 조작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

의 결과는 사회비교 기준점의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비교 기준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면 보다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진된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사회적 연결감 증진 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연결감 조건 중에서 사람들이 더 강한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상황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 논의

연구 1(설문조사)과 연구 2(실험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안녕감에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정체성 그리고 사회비교는 주요한 변인이다. 사회적 연결감이 높을수록 사회정체성과 사회적 안녕감은 높아진다. 또한 사회비교 중 내집단과의 하향비교가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향 비교를 주로 한다는 점이 연구 1의 결과로 확인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실험연구를 통해 사회비교 조건 변화만으로도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향비교를 많이 하지만, 사회비교의 기준점을 바꾸는 조건을 조성하면 사회적 안녕감이 충분히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한 사회적 안녕감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부재로 인해 대안적으로 사용한 사회적 안녕감 척도는 통합적인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문헌 연구를 통해 선별된 사회적 안녕감이 관련된 문항들은 국가적 사회조사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사회적 안녕감의 차원을 구성하는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 사회 통합 측면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신뢰가 가고 타당성 있는 통합적인 사회적 안녕감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실험연구에서 사회비교 기준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뉴스 영상이 실제 뉴스 영상이었기 때문에, 사회비교 조작 이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 변수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 과정에서 전달자의 매력도 및 매체 신뢰도와 같은 오염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실험 영상을 직접 제작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전달자의 연령대, 성별과 같은 요소들은 통제할 수 없었다. 메시지 전달자와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메시지에 대한 설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Yuan & Liu, 2023), 이러한 변인들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하여 사회비교 조건 외의 다른 요소들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사회비교 효과를 더 명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안녕감 척도 중 집단 효능감은 지역사회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거주지역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확률적 표본추출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거주지역에 대한 일반화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사회 기반 시설이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차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녕감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므로,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 환경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공동체 환경을 '한국 사회'로 정의하여 분석했으나,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존재하므로, 지역별 사회적 안녕감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균형 있는 지

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 연구는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그리고 사회비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사회적 안녕감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주제였기에, 이 연구 결과는 사회적 안녕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와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비교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검증함으로써 사회비교와 사회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로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만을 구분해 분석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하향 비교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내집단 하향 비교가 사회적 안녕감과 사회정체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자소개

서예지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회 및 문화심리 전공 박사수로 하였으며, 사회문제, 사회통합, 사회적 연결감, 친사회적 행동, 감사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안정민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회 및 문화심리 전공 박사수로 하였으며, 사회문제, 정당성 지각, 사회적 정의, 체제정당화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정태연은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와 문화, 사회문제, 한국인의 성인발달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사회심리학」 2판(2024),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심리학」(2022)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운석, 최슬기, 김솔이 (2022).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서재호, 김혜정, 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 지향으로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정보*, 46(1), 33-57.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 이동수, 이유리, 이소영, 성태훈 (2007).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명진 (2005). 한국 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 정체성. *삼성경제연구소*.
- 이승중, 이지은, 이혜림 (2020). 커뮤니티웰빙 지표 구축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9(2), 173-208.
- 이재열, 박상희 (2017). 사회적 안녕감 개념의 이론적 재구성, *보건과 사회과학*, 44(4), 5-43.
- 장은영, 한덕웅 (200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가 비교대상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15-135.
- 통계청 (2023). **2023** 한국의 사회지표. <http://www.index.go.kr>
- 한덕웅, 장은영 (2003).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85-112.
- 호영성, 박진수, 김영기 (2016). 글로벌 7개국 대학생 가치관 비교. *대학내일20대연구소*.
- Armitage, D., Béné, C., Charles, A. T., Johnson, D., & Allison, E. H. (2012). The interplay of well-being and resilience in applying a social-ecological perspective. *Ecology and Society*, 17(4), 15-32. <https://doi.org/10.5751/ES-04940-170415>.
- Armstrong, S., & Oomen-Early, J. (2009). Social connectedn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symptomatology among collegiate athletes versus

- nonathlet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7(5), 521-526.
<https://doi.org/10.3200/JACH.57.5.521-526>
- Arslan, G., Yildirim, M., Karatas, Z., Kabasakal, Z., & Kilinc, M. (2020). Meaningful living to promote complete mental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20, 930-942.
<https://doi.org/10.1007/s11469-020-00416-8>
- Ashforth, B. E., & Mae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https://doi.org/10.5465/amr.1989.4278999>
- Austin, J. T., & Vancouver, J. B. (1996). Goal Constructs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3), 338-375.
DOI: 10.1037/0033-2909.120.3.33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eaton, A. M., Dovidio, J. F., & Léger, N. (2008). All in this together? Group representations and policy suppor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808-817.
<https://doi.org/10.1016/j.jesp.2007.07.002>
-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1999).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 Americans: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 135-149.
<https://doi.org/10.1037/0022-3514.77.1.135>
- Brassai, L., Piko, B. F., & Steger, M. F. (2013). Individual and parental factors related to meaning in life among Hungarian minority adolescents from Rom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3), 308-315.
<https://doi.org/10.1080/00207594.2011.645483>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 475-482.
<https://doi.org/10.1177/0146167291175001>
- Brewer, M.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3), 429-444.
<https://doi.org/10.1111/0022-4537.00126>
- Brodsky, A. E., O'Campo, P. J., & Aronson, R. E. (1999). PSOC in community context: multi-level correlates of a measure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low-income, urban neighborhood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659-679.
[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911\)27:6<659::AID-JCOP3>3.0.CO;2-%23](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911)27:6<659::AID-JCOP3>3.0.CO;2-%23)
- Buunk, B. P., & Ybema, J. F. (1997). Social comparisons and occupational stress: The identification-contrast model. In B. P. Buunk & F. X. Gibbons (Eds.), *Health, coping, and well-being: Perspectives from social comparison theory* (pp. 359-38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ntor, N., & Sanderson, C. A. (1999). Life task participation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taking part in daily life.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230-243). Russell Sage Foundation.
- Carlson Jones, D. (2004). Body image among adolescent girls and boy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823-835.
<https://doi.org/10.1037/0012-1649.40.5.823>
- Carroll, J. M., Rosson, M. B., & Zhou, J. (2005). Community collective efficacy: Structuring technology-mediated social networks. In J. M. Carroll, M. B. Rosson, U. Farooq & J. D. Burge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ocio-technical design and social networking systems* (pp. 233-247). Hershey, PA: IGI Global.
doi:10.4018/978-1-60566-264-0.ch040
- Chan, K., & Prendergast, G. (2007). Materialism and

- social comparison among adolesc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3(2), 213-228.
<https://doi.org/10.2224/sbp.2007.35.2.213>
- Christakopoulou, S. Dawson, J., & Gari, A. (2001).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 321-351.
<https://doi.org/10.1023/A:1012256205169>
- Cicognani, E., Pirini, C., Keyes, C., Joshanloo, M., Rostami, R., & Nosratabadi, M. (2008).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 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 97-112.
<https://doi.org/10.1007/s11205-007-9222-3>
- Clay, D., Vignoles, V. L., & Dittmar, H. (2005). Body image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 girls: Testing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4), 451-477.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5.00107.x>
- Cohen, S., & Syme, S. L.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Massachusetts: Academic Press.
- Collins, R. L. (1996). For better or worse: The impa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elf-evalu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51-69.
<https://doi.org/10.1037/0033-2909.119.1.51>
- Cuthill, M. (2002). Coolangatta: A portrait of Community Well-being. *Urban Policy and Research*, 20(2), 187-203.
<https://doi.org/10.1080/08111140220144364>
- Davidson, W. B., & Cotter, P. R.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3), 246-253.
[https://doi.org/10.1002/1520-6629\(199107\)19:3<246::AID-JCOP2290190308>3.0.CO;2-L](https://doi.org/10.1002/1520-6629(199107)19:3<246::AID-JCOP2290190308>3.0.CO;2-L)
- Diener, E., & Seligman, M. E. (2004). Beyond money: Toward an economy of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3(1), 1-31.
<https://doi.org/10.1111/j.0963-7214.2004.00501001.x>
- Dubois, D., Rucker, D. D., & Galinsky, A. D. (2015). Social class, power, and selfishness: When and why upper and lower class individuals behave unethical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3), 436-449.
<https://doi.org/10.1037/pspi0000008>
- Eisenberg, M. E., & Resnick, M. D. (2006). Suicidality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5), 662-668.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06.04.024>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s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s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2-3), 371-389.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2002). Self and social ident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61-186.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3.100901.135228>
- Feinstein, B. A., Hershenberg, R., Bhatia, V., Latack, J. A., Meuwly, N., & Davila, J. (2013). Negative social comparison on Facebook and depressive symptoms: Rumination as a mechanism.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2(3), 161-170.
<https://doi.org/10.1037/a003311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https://doi.org/10.1177/001872675400700202>
- Genç, E., & Arslan, G. (2021). Optimism and

- dispositional hope to promote college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Positive School Psychology*, 5(2), 87-96.
<https://doi.org/10.47602/jpsp.v5i2.255>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https://doi.org/10.1037/0022-3514.76.1.129>
- Gilbert, D. T., Giesler, R. B., & Morris, K. A. (1995). When comparisons ari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227-236.
<https://doi.org/10.1037/0022-3514.69.2.227>
- Glaeser, E. L., Laibson, D. I., Scheinkman, J. A., & Soutter, C. L. (2000). Measuring trus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3), 811-846.
<https://doi.org/10.1162/003355300554926>
- Goffman, E. (1964). The neglected situ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66(6), 133-136.
<http://www.jstor.org/stable/668167>
- Gray, D., Randell, J., Manning, R., & Cleveland, M. (2023). Helping in times of crisis: Examining the social identity and wellbeing impacts of volunteering during COVID 19.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34(1), e2699. <https://doi.org/10.1002/casp.2699>
- Haferkamp, N., & Krämer, N. C. (2011). Social comparison 2.0: Examining the effects of online profiles on social-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5), 309-314.
<https://doi.org/10.1089/cyber.2010.0120>
- Haslam, S. A., Jetten, J., Postmes, T., & Haslam, C. (2009). Social identity, health and well-being: An emerging agenda for applied psychology. *Psychology & Health*, 24(3), 263-265.
<https://doi.org/10.1080/08870440801889653>
- Haslam, S. A., Reicher, S. D., & Levine, M. (2012). When other people are heaven when other people are hell: How social identity determines the nature and impact of social support. In Jetten, J., Haslam, C., Haslam, A., S. (Eds) *The social cure* (pp. 157-174). London: Psychology Press.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Y: Guilford Press.
- Helliwell, J. F. (2008).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Development*.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https://doi.org/10.3386/w14507>
- Helliwell, J. F. (2014).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In Hämäläinen, T, J., Michaelson, J (Eds). *Well-being and beyond* (pp. 125-143). Camberley: Edward Elgar Publishing.
<https://doi.org/10.4337/9781783472901.00013>
- Hopkins, N., Reicher, S.D., Khan, S.S., Tewari, S., Srinivasan, N. and Stevenson, C. (2016). Explaining effervescence: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social identity and positive experience in crowds. *Cognition and Emotion*, 30(1), 20-32.
<https://doi.org/10.1080/02699931.2015.1015969>
- Humphrey, A., March, E., Lavender, A. P., Miller, K. J., Alvarenga, M., & Mesagno, C. (2022). Buffering the fear of COVID-19: Social connectednes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OVID-19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havioral Sciences*, 12(3), 86-93.
<https://doi.org/10.3390/bs12030086>
- Jang, H., Kim, E. J., & Reeve, J. (2016). Why students become more engaged or more disengaged during the semester: A self-determination theory dual-process model. *Learning and Instruction*, 43, 27-38.

- <https://doi.org/10.1016/j.learninstruc.2016.01.002>
 Jose, P. E., Ryan N., & Pryor J. (2012) Does social connectedness promote a greater sense of well-being in adolescence over tim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2(2), 235-251.
<https://doi.org/10.1111/j.1532-7795.2012.00783.x>
- Joshanloo, M., & Ghaedi, Gh. (2009). Value priorities as predictors of hedonic and eudaimonic aspects of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294-298.
<https://doi.org/10.1016/j.paid.2009.03.016>
- Joshanloo, M., Nosratabadi, M., & Rostami, R. (2006). Examin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eys comprehensive scale of well-being,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9), 35-51.
https://jip.stb.iau.ir/article_512411_en.html?lang=en
- Kalpidou, M., Costin, D., & Morris, J.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book and the well-being of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4), 183-189.
<https://doi.org/10.1089/cyber.2010.0061>
- Kaminski, J. W., Puddy, R. W., Hall, D. M., Cashman, S. Y., Crosby, A. E., & Ortega, L. A. (2010). The relative influence of different domains of social connectedness on self-directed viol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460-473.
<https://doi.org/10.1007/s10964-009-9472-2>
- Kawachi, I., & Berkman, L. F. (2001). *Social t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78, 458-467.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93/jurban/78.3.458>
- Kemmelmeier, M., & Oyserman, D. (2001). The ups and downs of thinking about successful other: Self-construals and th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3), 311-320.
<https://doi.org/10.1002/ejsp.47>
- Kennes, A., Peeters, S., Janssens, M., Reijnders, J., Lataster, J., & Jacobs, N. (2020).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SF) for Dutch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11), 3276-3286.
<https://doi.org/10.1007/s10826-020-01803-4>
- Kertzner, R. M., Meyer, I. H., Frost, D. M., & Stirratt, M. J. (2009). Soci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The effects of race, gender, age, and sexual identi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 500-510. <https://doi.org/10.1037/a0016848>.
- Key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21-140.
<https://doi.org/10.2307/2787065>
- Keys, C. L. M., Jia Yao, Celia F. Hybels, Glen Milstein, Rae Jean Proeschold-Bell. (2020). Are changes in positive mental health associated with increased likelihood of depression over a two year period? A test of the mental health promotion and protection hypothes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0, 136-142.
<https://doi-org.proxy.cau.ac.kr/10.1016/j.jad.2020.03.056>
- Keys, C. L. M., & Ryff, C. D. (1998).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ocial structural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In D. P. McAdams, & E. de St. Aubin (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How and why we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pp. 227-26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32-241.
<https://doi.org/10.1037/0022-0167.42.2.232>
- Lee, R. M., & Robbins, S. B.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 anxiety, self-esteem, and social identity [Editori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38-345.
<https://doi.org/10.1037/0022-0167.45.3.338>
- Levine, M., Prosser, A., Evans, D., & Reicher, S. (2005). Identity and emergency intervention: How social group membership and inclusiveness of group boundaries shape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4), 443-453.
<https://doi.org/10.1177/0146167204271651>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363-385.
<https://doi.org/10.1146/annurev.soc.27.1.363>
- Locke, E. A., & Latham, G. P. (2002). Building a practically useful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motivation: A 35-year odyssey. *American Psychologist*, 57(9), 705-717.
<https://doi.org/10.1037/0003-066X.57.9.705>
- Malešević Perović, L. (2008).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in transition countries: Investigat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macroeconomic variables. *Financial Theory and Practice*, 32(4), 519-537.
<https://doi.org/0000-0003-2883-1597>
- Malone, G. P., Pillow, D. R., & Osman, A. (2012). The General Belongingness Scale (GBS): assessing achieved belonging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 311-316.
<https://doi.org/10.1016/j.jpaid.2011.10.027>
- Markovich, Julia, Monika Slovynec D'Angelo, and Thy Dinh. (2018). *Community Wellbeing: A Framework for the Design Professions*. Ottawa: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https://doi-org.proxy.cau.ac.kr/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https://doi-org.proxy.cau.ac.kr/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3.0.CO;2-I)
- Miles, R. L., Greer, L., Kraatz, D., and Kinnear, S. (2008).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a central Queensland case study.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4(1), 73-93.
- Molleman, E., Pruyn, A., & van Knippenberg, A. (1986). Social comparison processes among cancer pati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1), 1-13.
<https://doi.org/10.1111/j.2044-8309.1986.tb00707.x>
- Nesi, J., & Prinstein, M. J. (2015). Using social media for social comparison and feedback-seeking: Gender and popularity moderate associ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 1427-1438.
<https://doi.org/10.1007/s10802-015-0020-0>
- Nier, J. A., Gaertner, S. L., Dovidio, J. F., Banker, B. S., Ward, C. M., and Rust, M. C. (2001). Changing interracial evaluations and behaviour: the effects of a common group identity. *Group Process Intergroup Relation*, 4, 299-316.
<https://doi.org/10.1177/1368430201004004001>
- O'Rourke, H. M., & Sidani, S. (2017). Definition, determinants, and outcomes of social connectedness for older adults: a scoping review.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43(7), 43-52.
<https://doi.org/10.3928/00989134-20170223-03>
- Oyanedel, J. C., & Páez, D. (2020). Social belongingness and wellbeing: a review of constructs and evidence a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Frontiers in Psychology Social Psychology issue. *Front Psychology*, Preprint.
<https://doi.org/10.31234/osf.io/64vx2>
- Ozbay, F., Johnson, D. C., Dimoulas, E., Morgan Iii, C. A., Charney, D., & Southwick, S. (2007).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to stress: from neurobiology to clinical practice. *Psychiatry*, 4(5), 35-40.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92>

- 1311/
- Ozimek, P., Baer, F., & Förster, J. (2017). Materialists on Facebook: the self-regulatory role of social comparisons and the objectification of Facebook friends. *Heliyon*, 3(11), 1-24. <https://doi.org/10.1016/j.heliyon.2017.e00449>
- Petrillo, G., Capone, V., Caso, D., & Keyes, C. L. M. (2015). The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MHC-SF) as a measure of well-being in the Italian contex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1(1), 291-312. <https://doi.org/10.1007/s11205-014-0629-3>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https://doi.org/10.1037/a0020092>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 Schuster
- Postmes, T., & Branscombe, N. R. (2002). Influence of long-term racial environmental composition on subjective well-being in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735-751. <https://doi.org/10.1037/0022-3514.83.3.735>
- Pretty, G. M., Conroy, C., Dugay, J., Fowler, K., & Williams, D. (1996).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evance to adolescents of all ag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65-379. [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65::AID-JCOP6>3.0.CO;2-T](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65::AID-JCOP6>3.0.CO;2-T)
- Prilleltensky, I. (2012). Wellness as Fair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9, 1-21. <https://doi.org/10.1007/s10464-011-9448-8>
- Rand, D. G., Pfeiffer, T., Dreber, A., Sheketoff, R. W., Wernerfelt, N. C., & Benkler, Y. (2009). Dynamic remodeling of in-group bias during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Th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6, 6187-6191. <https://doi.org/10.1073/pnas.0811552106>
- Schunk, D. H., & Pajares, F. (2009). The developmen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K. R. Wentzel & A. Wigfield (Eds.), *Handbook of motivation at school* (pp. 35-53). Routledge.
- Smolak, L., & Stein, J. A. (2006). The relationship of drive for muscularity to sociocultural factors, self-esteem, physical attributes gender role, and social comparison in middle school boys. *Body Image*, 3(2), 121-129. <https://doi.org/10.1016/j.bodyim.2006.03.002>
- Snyder, C. R., Rand, K. L., & Sigmon, D. R. (2002). Hope theory: A member of the positive psychology famil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57-276). Oxford University Press.
- Stanley, I. H., Hom, M. A., Chu, C., Dougherty, S. P., Gallyer, A. J., Spencer-Thomas, S., Shelef, L., Fruchter, E., Comttois, K. A., Gutierrez, P. M., Sachs-Ericsson, N. J., & Joiner, T. E. (2019). Perceptions of belongingness and social support attenuate PTSD symptom severity among firefighters: A multistudy investigation. *Psychological Services*, 18(4), 543-555. <https://doi.org/10.1037/ser0000240>
- Tajfel, H.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 Taylor, S. E., & Lobel, M. (1989). Social comparison activity under threat: Downward evaluation and upward contacts. *Psychological Review*, *96*(4), 569-575.
<https://doi.org/10.1037/0033-295X.96.4.569>
- Taylor, S. E., Wayment, H. A., & Carrillo, M. (1996).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3) (pp. 3-27). NY: The Guilford Press.
- Tesser, A. (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pp. 181-227). New York: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227-0](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227-0)
- Townsend, K. C., & McWhirter, B. T. (2005). Connectedn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ssessment, and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3*, 191-201.
<https://doi.org/10.1002/j.1556-6678.2005.tb00596.x>
- Vignoles, V. L. (2011). Identity motives.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403-432). Springer.
- Vogel, E. A., Rose, J. P., Okdie, B. M., Eckles, K., & Franz, B. (2015). Who compares and despairs?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social media use and its outcom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249-256.
<https://doi.org/10.1016/j.paid.2015.06.026>
- Vogel, E. A., Rose, J. P., Roberts, L. R., & Eckles, K. (2014). Social comparison, social media, and self-esteem.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3*(4), 206-222.
<https://doi.org/10.1037/ppm0000047>
- Weijers, A., Rasing, S., Creemers, D., Vermulst, A., Schellekens, A. F.A., & Westerhof, G. J.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general psychopathology, and well-being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jclp.23083*.
<https://doi.org/10.1002/jclp.23083>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32-242.
<https://doi.org/10.1177/0146167204271326>
- White, K., Lehman, D. R., & Cohen, D. (2006). Culture, self-construal,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oth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5), 582-592.
<https://doi.org/10.1016/j.jesp.2005.10.001>
- Wilkinson, R., & Pickett, K. (2009).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London: Bloomsbury Press.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2), 245-271.
<https://doi.org/10.1037/0033-2909.90.2.245>
- Wiseman, J., & Brasher, K. (2008). Community wellbeing in an unwell world: Trend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29*(3), 353-366.
DOI: 10.1057/jphp.2008.16
- Wood, J. V. (1989). Theory and research concerning social comparisons of personal attribute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31-248.
<https://doi.org/10.1037/0033-2909.106.2.231>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https://doi.org/10.1023/A:1006884930135>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46).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about/governance/constitution>
- Yuan, M., & Liu, N. (2023). Power and persuasion: The value of message-audience matching and fluency. *Current Psychology, 42*, 17632-17648. <https://doi.org/10.1007/s12144-022-02915-4>
- Zhang Y, Ma Z. F. (2020).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among local residents in liaoning province, China: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7), 2381. <https://doi.org/10.3390/ijerph17072381>
- Zhao, W. (2012). Economic inequality, status perception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hina's transitional economy.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0*(4), 433-450.
- Zimmerman, B. J. (2000).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82-91. <https://doi.org/10.1006/ceps.1999.1016>

1 차원고접수 : 2024. 06. 12.

수정원고접수 : 2024. 08. 28.

최종게재결정 : 2024. 09. 03.

The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on social well-being

Yei-ji Seo Jungmin Ahn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connectedness,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on social well-being, with the objective of discussing psychosocial strategies to enhance social well-being and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such interventions. To this end, Study 1 employed a survey to statist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and medi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gain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se relationships. Study 2 involved an experimental approach to determine the causal effects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comparison on social well-being, and to test for the presence of interaction effects. The primary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onnectedness and Korean social identity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well-being, with Korean social identity fully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well-being. Second, while the main effects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comparison on social well-being and social identity were confirmed, n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se two variables were observed. Specifically, higher levels of social connectedness were associated with more positive reports of social well-being and social identity. Additionally, downward comparison with past Korean society resulted in the most favorable outcomes for social well-being.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ocial well-being, a concept that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and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key variables—social connectedness,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thus offering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aimed at enhancing social well-being.

Key words : Social well-being, Social connectedness, Social identity, Korean identity, Social comparison